

“바다의 힘을 전기로” 신안, 조류발전 메카로 도약한다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지역 내 부존 에너지 자원 활용 방안 구체화 목표

신안군이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발전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신안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신안군 일원의 조류발전 자원을 분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모색해 지역 내 부존 에너지 자원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조류발전의 지역 여건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조류에너지 잠재량은 약 12GW로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10GW가 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에 부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군은 풍부한 조류 자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특성을 지닌 조류발전에 주목해 왔다.

신안군은 조류발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과 조류발전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신안군은 맞춤형 미래에너지 자원을 개발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착저형 조류발전기 구상도.

하고 활용을 극대화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은 이미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을 도입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말 기준 ‘햇빛연금’ 누적 지급액이 220여 원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에너지 이익공유 효과로 매년 급속히 줄어들었던 인구가 2022년 대비 315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안=정영욱 기자

해남, 올해 물김 역대 최대 1230억원 위판고 올려

만호해역 김양식 재개·홍수 출하 빠른 대처 영향

해남군의 2025년 물김 생산이 역대 최대 위판고를 달성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5일 송지 어민위판장을 마지막으로 올해 물김 생산을 종료한 가운데 올해 해남군 물김은 8만 3991톤을 생산, 1230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37%(2만2499톤), 금액으로는 8%(91억원) 증가한 실적이다.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과 초기 채묘 시기에 갯병 발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이 고품질 김 생산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수출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는 등 해외에서 한국 김이 큰 인기를 끌면서 물김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만호해역 어장 이용에 합의가 되면서 올해부터 김 양식을 재개했다. 만호해역은 해남 어민들의 어장 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에는 김 양식시설을 하지 못하였으나, 해남군과 군의회, 해남군수협이 양 군 어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지역상생을 위해 김 양식장 이용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 결과 25년산부터 만호해역에서 해남 어민들의 김 양식이 재개될 수 있었다.

장흥 물축제 ‘물의 도시’ 伊 베니스에 알린다

장흥군-베니스 카니발 조직위 ‘물축제 세계화’ 업무협약



장흥군은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 조직위원회와 국제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김성 장흥군수, 마시모 안드레올리(Massimo Andreoli) 베니스 카니발 조직위원장, 안남일 고령

대학교 교수, 서진성 케이티폴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한 광양시 매실퇴비는 버려지는 폐실을 활용해 만든 기능성 퇴비로, 광양시 주요 재배작물인 양상추와 애호박 시설재배단지에서 실증시험을 추진한 결과 농가소득이 17%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기능성 미생물 매실퇴비를 활용한 작물재배 기술은 농촌진흥청 주관 공모사업인 2026년도 신기술 시범사업의 신규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년간 전국 시설채소 재배단지(80ha 규모)를 대상으로 매실 부산물 퇴비를 활용한 시설재배 토양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매실퇴비 제품화를 위해

체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양측은 축제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교류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에 합의했다.

김성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된 인연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 분야의 폭넓은 교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시모 안드레올리 위원장은 “내년 2월 베니스 카니발에 물축제 관계자를 공식 초청해 베니스에 한국문화와 물축제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업무협약을 통해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케이 페스트 2025(K-FEST with Venezia Comics 2025)에 참가해 물축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내달 3일 개막

‘완도 방문의 해’ 맞아 프로그램·공연·행사 등 풍성

완도군의 대표 축제인 ‘2025 장보고수산물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드높이고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청정바다로 떠나서 치유와 미식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는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프로그램과 공연, 문화행사 등을 지난해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했다.

축제 첫날인 5월 3일에는 ‘장보고 고유제’를 시작으로 개막식에서는 ‘푸른 바다의 전설 장보고의 귀환’이라는 주제의 공연과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해신’ 방영 20주년 기념 특별 콘서트가 진행된다.

콘서트에는 완도 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안성훈과 가수 이은미, 신용재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5월 4일에는 ‘전통 노 젓기 대회’, 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함께하

는 ‘청해 가랑’, 5월 5일에는 ‘청해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225m의 전복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 국민 밴드 YB의 ‘힐링 웨이브 블루 콘서트’ 등이 준비돼 있다.

5월 6일에는 완도군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해양치유를 주제로 한 ‘해양치유 특화 음식 읍면 경연대회’와 폐막 행사에는 가수 박서진이 함께하는 ‘Sea You 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자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대나무 바다낚시’와 ‘전복 파기 체험’, 어린이들이 10여 종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완도 왔선 키즈 월드’, 완도에 서만 자생하는 완도호랑가시나무에 소원을 적어 거는 ‘완도호랑가시나무소원 존’ 등이 있다.

전복과 광어 등 싱싱한 완도 수산물을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완도풀푸드마켓’과 완도산 해조류 등을 판매하는 ‘완도풀 특산품마켓’도 운영한다. /완도=이두식 기자

순천, 벼 등 5개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

보험료 90% 보조… 안전보험·농기계 보험도 지원

순천시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로, 순천시에서 해당 작물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개인 또는 법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작목별 가입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고구마는 6월 5일까지, 옥수수는 6월 13일까지, 벼·대파는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시 품목별로

가입 기간 및 특약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농작물 재해뿐만이 아니라 시가지역 하악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도 함께 지원하며 우리시는 고구마, 옥수수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므로 농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사고 및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에서도 각각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목포,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1대당 최대 57만 원까지

목포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구입·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량은 50대로,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운전 면허 반납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1대당 최대 57만 원까지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차량이 주행 중 차선을 이탈하거나 차량 간 근접·추돌, 보행자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고음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페달 블랙박스는 브레이크 페달에 설치되어 급발진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된다.

장비 지원을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목포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목포=김근호 기자

“5월 가족과 추억은, 강진 불금불파에서”

반값여행 강진 불고기와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가득

매주 금요일, 토요일 강진을 들썩이게 하는 ‘강진 불금불파’가 관광객으로 북적이며 흥행을 이어 가고 있다. 불금불파는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의 줄임말로 강진군 병영면의 고우 먹거리인 불고기와 함께 문화 공연과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상반기는 6월 7일까지 운영된다.

강진군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과 3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먼저 어린이 동반 가족이 행사장 내 불고기 영수증을 제시하면 모루인형, 모루틀림, 파우치, 라탄 도어벨, 디퓨저 등 다양한 나만의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한 가족은 강진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가족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5월 2일에는 가족밴드 ‘예뮬밴드’, 5월 3일에는 가정의 달 특별공연으로 ‘유대진 미술사’의 신기한 미술 공연과 하이лай트 EDM DJ 공연이 준비돼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 모으고 있다.

먹거리로는 병영패지불고기, 파전, 주먹밥, 팝콘, 하멜론 커피와 하멜론 맥주 등 강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으며 먹거리 이벤트로 불고기 2인분 이상 주문 하면 하멜론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강진=김경선 기자

영암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 접수

영암군가족센터가 올해 5월 2일부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사회적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1년에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교육활동비로는, 교재 구입, 예체능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접수기간은 1차 5/2~30일, 2차 7/1~31일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고 영암군가족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조은정 영암군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활동비 신청에 많은 가정에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가족센터 (061-463-2928~9)에서 한다. /영암=김형두 기자